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무엘상 17:41-49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6 척 거인 골리앗을 물매돌로 물리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움에 임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로 그는 그 어떤 대상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도 많을 수 있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인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고, 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과 같은 상황이었습니. 블레셋은 가장 훌륭한 무기로 무장한 반면에, 이스라엘은 칼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 게다가 블레셋에는 몇 백 년에 하나 나올까 싶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그 창 자루는 베를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삼상 17:4-7)

그는 키가 3m 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강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 했습니다. 그 앞에서면 보통 사람들은 모두 어린아이의 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를 꺾어 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위축이 되어 누구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다윗이 나섭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참을 수 없어서 용감하게 나서게 되고, 결국 그는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힘의 대결로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앙의 대결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서자,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말렸습니. 현장에 있던 형들은 오히려 그를 교만하고 건방지다며 꾸짖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삼상 17:28)

형들 뿐 만 아니라, 사울왕도 다윗을 걱정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다 비록 다윗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설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삼상 17:34-36)

다윗이 비록 자신은 갑옷을 입지 않았지만, 양떼를 치며 사자나 곰이 달려 들 때 그들을 대상으로 싸운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 주목받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들과의 싸움을 경험하며 이기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양떼를 치며 곰과 사자와 싸운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형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양을 치면서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들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삼상 17:43)

골리앗은 소년 다윗의 모습이 너무도 가소로워서 그를 ‘개’에 비유하며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5)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7)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싸움에 임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맞서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겠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 말은, 이 싸움이 무기나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의 대결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멋진 선포는, 그의 신앙고백임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앞드러지니라” (삼상 17:49)

골리앗은 완전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혔고, 그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업신여겼고, 그 업신여김으로 인해 오히려 긴장의 끈을 놓고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강력한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여겼던 그 일들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란은 우리의 밥이 된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다가온 환란과 어려움이 그의 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 환란을 만날 때, 불평과 불만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를 만날 때 내뿜는 불평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입술로 승리를 말하였듯이, 우리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마치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이 그 문제가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때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 다함께 삼상 17:45, 47(밑줄 부분) 을 큰소리로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